



FRIEDRICH NAUMANN
STIFTUNG Für die Freiheit.



독일 통일 30년,
30가지 팩트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 사무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752

 fnfkorea.org
 [/FNFKorea](https://www.facebook.com/FNFKorea)
 [@FNFKorea](https://twitter.com/FNFKorea)

연락처

전화번호: +82-2-2295-2155
팩스: +82-2-2293-8529
이메일: fnfkorea@freiheit.org

편집자

딜크 아스만 박사(Dr. Dirk Assmann),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자유주의 연구소

컨설 및 레이아웃

TroNa GmbH

ISBN:

978-3-948950-03-3

작성일

2020년 8월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CC BY-NC-ND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본 출판물 사용에 대한 참고 사항

본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정보 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판물은 무료로 제공되며 판매용이 아닙니다. 선거 운동중 (독일 총선거, 주 정부 선거, 지방 선거 및 유럽 의회 선거) 선전 목적으로 정당 또는 선거 운동원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차

서론

독일 통일 30주년

P. 6

경제

- 실업 P. 12
- 노동 생산성 P. 14
- 임금 수준 P. 16
- 관광 P. 18
- 혁신 P. 20
- 평균 연금 수준 P. 22
- 동부 지역의 브랜드 P. 24
- 주식회사 소재지 P. 26
- 기업 규모 P. 28
- 창업 P. 30
- 광대역 보급률 P. 32

10-32

- P. 12
- P. 14
- P. 16
- P. 18
- P. 20
- P. 22
- P. 24
- P. 26
- P. 28
- P. 30
- P. 32

사회

- 동부 독일의 인구 급증
- 인구 이동
- 동부의 대학교
- 구분 방식: “동부”와 “서부”
- 생활 만족도
- 기대 수명
- 시민 참여
- 교외 지역
- 독일 통일에 대한 의견
- 보육 서비스
- 평균 연령
- 여성 고용률
- 여성의 첫 자녀 출산 평균 나이

34-60

- P. 36
- P. 38
- P. 40
- P. 42
- P. 44
- P. 46
- P. 48
- P. 50
- P. 52
- P. 54
- P. 56
- P. 58
- P. 60

재미있는 사실

- 분데스리가 1부 리그
- 식습관
- 크리스마스 문화
- 결혼과 이혼
- 이름
- 소비 행태

6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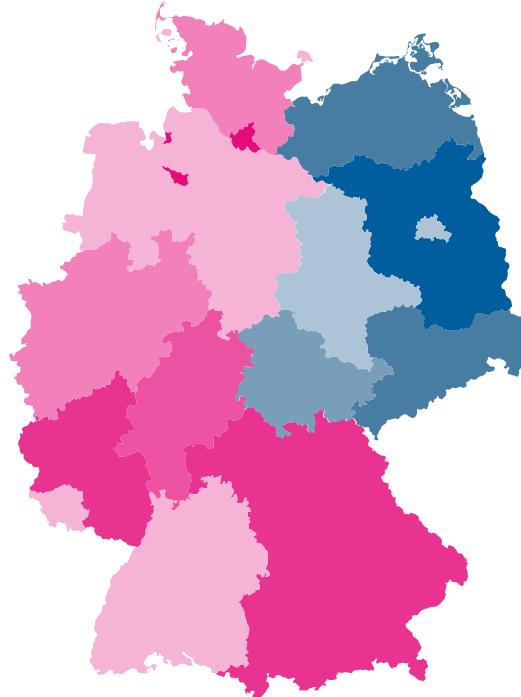
- P. 64
- P. 66
- P. 68
- P. 70
- P. 72
- P. 74

독일 통일 30주년

2020년 10월 3일은 독일 통일의 3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분단 독일로 살았던 세월보다, 통일된 독일로 산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특히 분단과 구동독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30대 초반에게 통일이란 일상 그 자체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지난 30여 년간 NATO의 코소보 공습 독일군 참여, 세계 무역 센터 붕괴, 유로화 도입,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함께 겪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동부와 서부 사람들이 극복해야 했던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이란 구분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 경험하는 이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진 독일이 하나가 되기 전에 서로 맞추어 나가야 했습니다.

통일 정책을 집행하며 “독일 통일 조약”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부 독일 연방주를 경제 및 정치적으로 다시 일으킨 것 외에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

2020년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와 특성이 독일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어 줍니다.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또는 작센주와
튀링겐주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차이는
항상 있을 것이며 또한 그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부와 서부, 북부와 남부 모두
행복하게 살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동부 사람들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 동부 지역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또한 많은 기업가의 투자와 참여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선입견과 정형화된 행동을 극복하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지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핵심만 정리하자면, “독일 통일 30년, 30가지
팩트” 간행물에서는 구동독의 지난 발자취와 현재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요 경제 및 사회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룹니다.
실업률에서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독일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을까요? 혁신 능력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동부의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는지, 식습관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는 어떻게
보내는지와 같은 소소한 질문도 다뤄보았습니다.

1장: 경제

경제 - 1번째 팩트체크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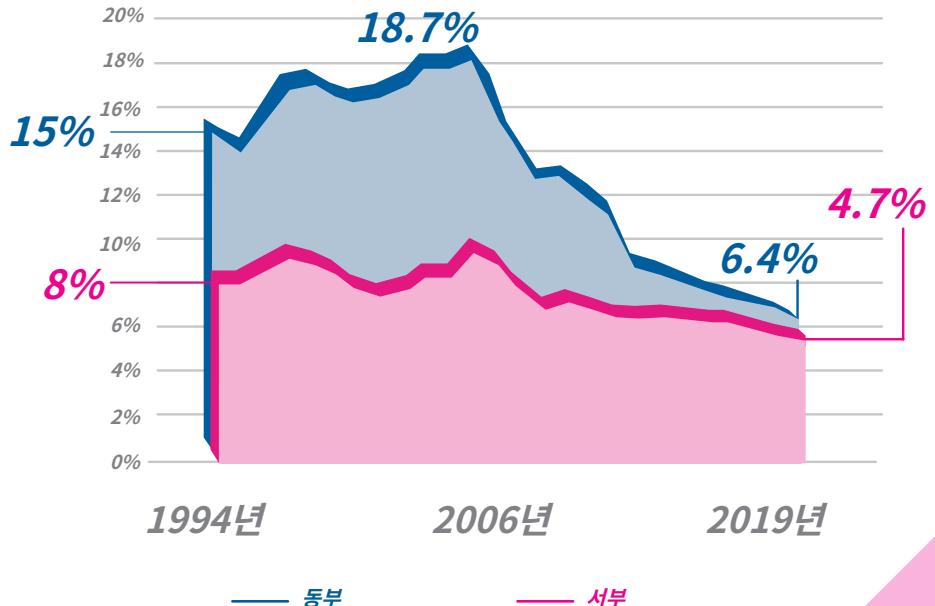
실업률에 대한 성공 신화는 주목할 만합니다.¹ 2019년 동부와 서부의 실업률 차이²는 약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부의 실업률은 4.7%, 동부의 실업률은 6.4%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동부와 서부의 실업률은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2005년 동부의 실업률은 18.7%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서부는 9.9%로,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 노동 시장에 어떤 성장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동부 및 서부의 실업률



¹ 이러한 발전 배경 중에는 동부 독일 연방주 내 인구 이동과 정년 제도 연장이 있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² 실업률은 총 민간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출처: 노동청 통계

경제 - 2번째 팩트체크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은 일정 단위의 노동량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한 지역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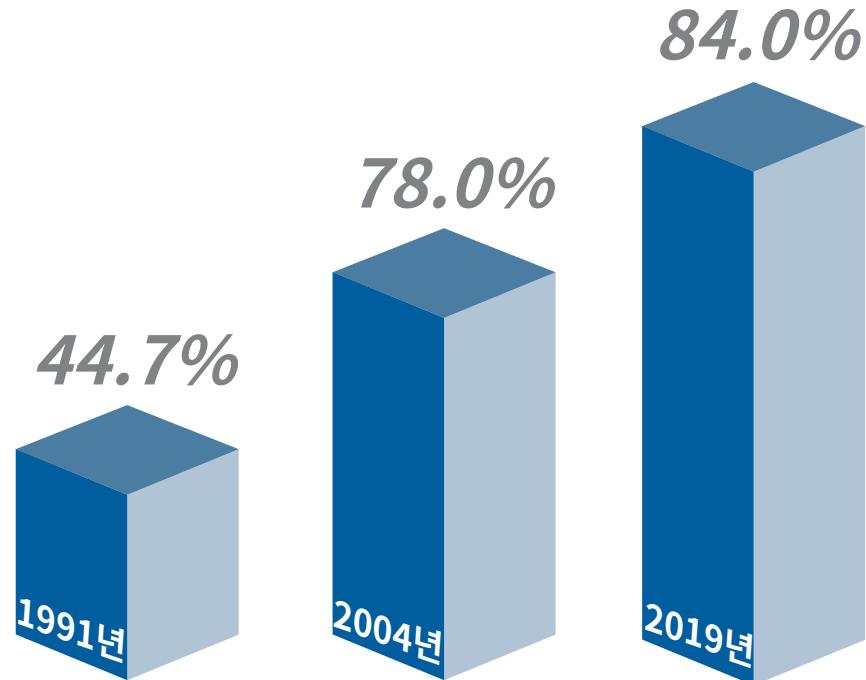
1991년 동부(베를린 포함)의 생산성은 서부의 44.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빠르게 만회하여 2002년에는 서부 노동 생산성의 약 77%에 도달했습니다. 최근에도 동부는 느리지만 꾸준히 서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2019년 동부 노동 인구는 서부 노동 인구 소득 수준의 84%를 벌어들였습니다. 따라서 동부의 노동 생산성은 65,633유로, 서부는 78,161유로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독일에 긍정적입니다. 서부의 생산성은 독일 통일 이후 약 68% 향상하였습니다.

동부의 생산성은 3배 이상 급상승하였습니다. 베를린을 포함하여 동부는 변화의 중심지로서, 지난 수십 년 전부터 다른 주보다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동부의 발전 잠재력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서부 대비 동부의 노동 생산성(%)



출처: 독일 국가 회계(GNP)

경제 - 3번째 팩트체크 임금 수준

독일 통일 이듬해 동부의 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1996년, 이미 동부(베를린 포함)의 임금 수준은 서부의 약 80%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임금 수준의 상승 폭이 주춤하였습니다. 동부의 상대 소득이 수년간 약 80%에서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다시 상승하면서 2019년, 서부의 87.6%에 도달하였습니다.

서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7,844유로일 때 동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3,145유로였습니다.

여전히 격차는 있지만 동부의 임금 상승 정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1991년 이래 서부의 임금은 약 72% 상승한 반면 동부의 임금은 159% 상승하였습니다.

서부 대비 동부의 임금 수준(%)



출처: 독일 국가 회계(GNP)

경제 - 4번째 팩트체크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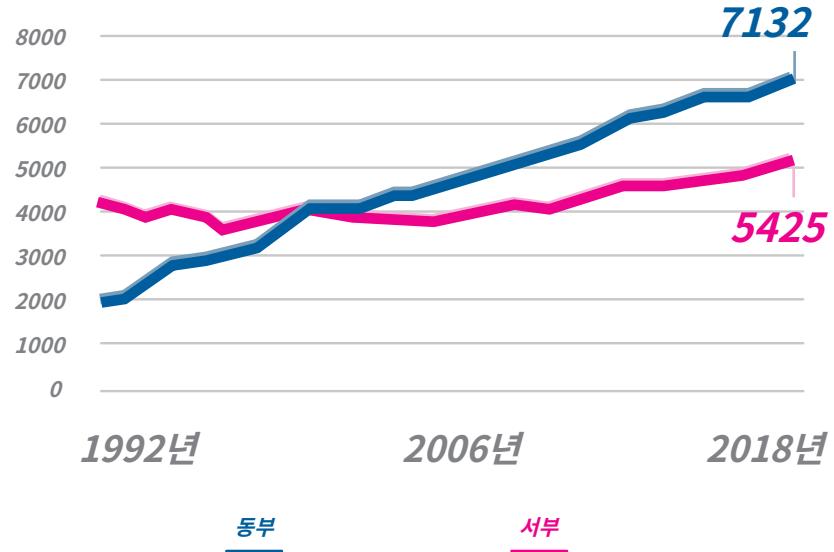
서부 독일의 투숙객 수는 동부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투숙객 수를 비교하면 2001년 동부가 우위를 점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주 기준에서도 동부가 매우 앞서고 있습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2018년 인구 1,000명당 19,000명 이상의 투숙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솔리스비히홀슈타인주가 인구 1,000명당 투숙객 수 12,000명 미만으로 조금 뒤쳐져 있습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인기는 놀랍지 않습니다. 발트해, 메클렌부르크의 호수 지대와 수많은 자연 보호 구역은 휴양지 조건을 모두 갖춘 관광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0명당 투숙객 수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내부 자료

경제 - 5번째 팩트체크 혁신

각 지역의 실제 혁신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혁신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특히 두 지표에서 동부와 서부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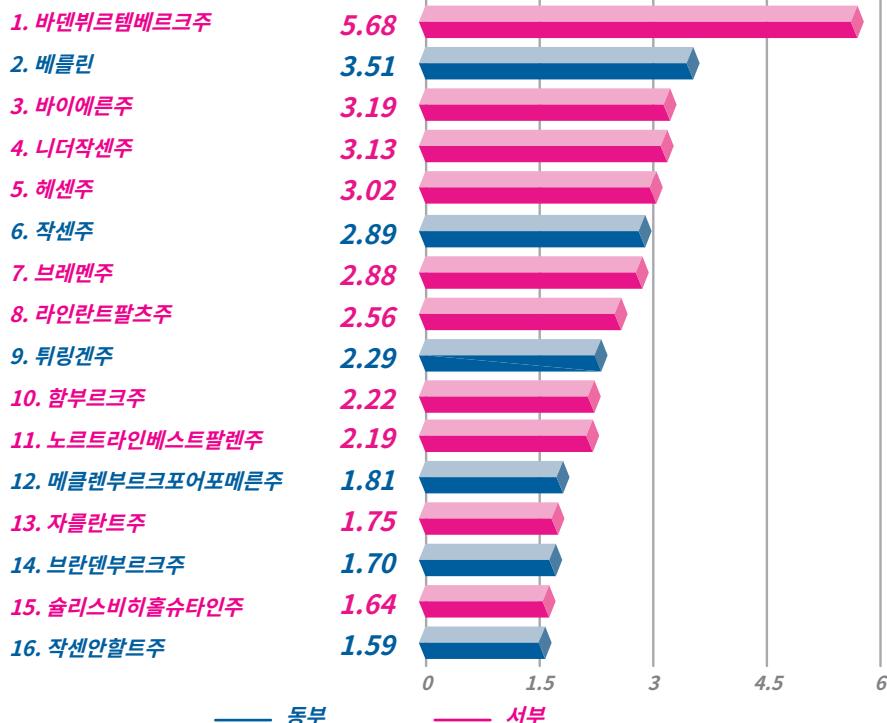
서부는 인구 100,000명당 특허 등록 수가 동부 대비 4배 이상 많습니다. 최근 두 지역의 격차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연구 개발 분야에 근무하는 서부의 근로자 수가 동부의 근로자 수보다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두 지역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부에서 생활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집세, 저렴한 생활비, 훌륭한 고등 교육 기관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센과 튜링겐에서는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느끼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부와 서부의 생활 조건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특히 동부 독일을 위한 혁신 친화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베를린은 매년 독일 스타트업의 40%가 설립되는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동부 창업가들에게 중요한 원동력 역할을 합니다.

연구 개발을 위한 내부 지출, GDP 점유율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평균 연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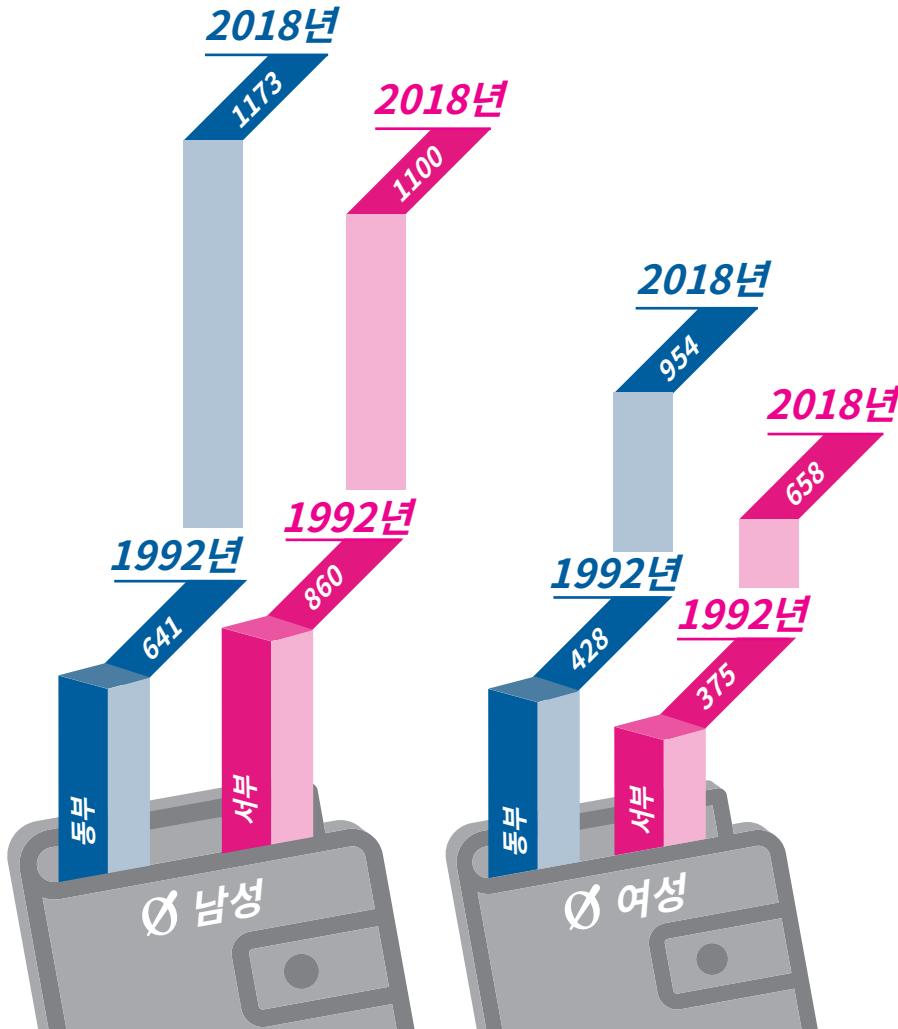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시민이었던 약 4백만 명을 독일 연방 공화국의 연금 시스템에 통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연금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³을 살펴보면, 동부의 연금 수령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부 남성의 경우 2018년 기준 월 1,173유로를 받았지만 서부 남성의 경우 평균 1,100유로에 그쳤습니다. 동부와 서부의 차이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해 기준, 동부 여성의 월평균 국가 임금은 954유로인 반면 서부 여성은 658유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액 차이는 대부분 동부 독일의 연금 수령자들이 납입한 횟수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부 여성의 근로 형태가 서부 여성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비율은 높고 시간제 근무 비율은 낮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출처: 독일 연금 보험 제도, deutschlandzahlen.de

경제 - 7번째 팩트체크 동부 지역의 브랜드

“Trabi(트라비)” 외 동부의 유명한 많은 제품들은 격동기 이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부 제품 중 놀라운 성공 신화를 이루고 훌륭한 품질과 독창성으로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제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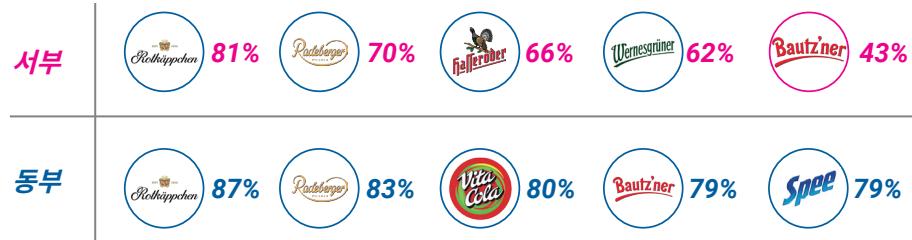
マイセン 지역의 도자기와 랑에운트조네(A. Lange & Söhne)의 시계는 독일의 전통적인 장인 정신의 상징입니다. 할로렌(Halloren)의 간식은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크림 카카오 초콜릿은 이곳에서 매달 4백만여 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단 것보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우츠너(Bautz`ner) 머스타드의 중간 매운맛은 매년 2,400만 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맥주입니다. 동부 독일의 인기 제품인 코스트리처(Köstritzer), 하서뢰더(Hasseröder) 및 라데베르거(Radeberger)가 대표적입니다.

라데베르거 그룹의 전 세계 매출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16억에서 22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양조 사업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동부에서 성공한 브랜드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로트캡션(Rotkäppchen)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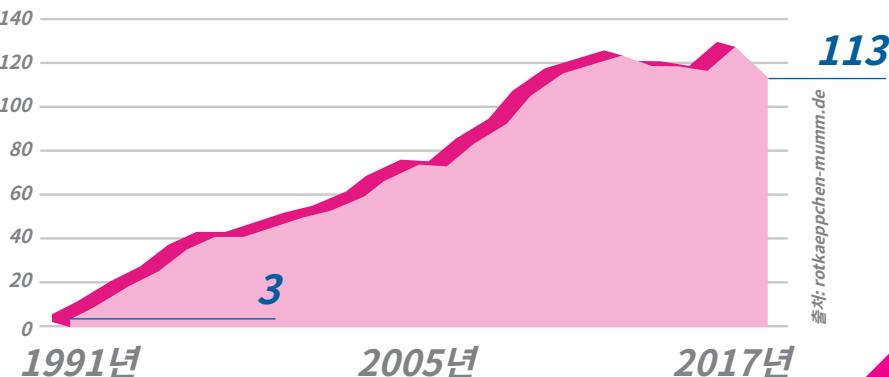
로트캡션도 격동기 초기에는 다른 동부 기업들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통망 실패로 1991년까지 360명의 종업원 중 300명을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서부 독일에서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독일 내 로트캡션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서부 내 멘(Mumm), 줄리 멘(Jules Mumm) 또는 MM과 같은 제조사를 인수했습니다. 오늘날 로드캡션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병 이상의 샴페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



출처: 2016년 독일 동서 지역 브랜드에 대한 논문

로트캡션 샴페인의 전 세계 판매량(단위: 백만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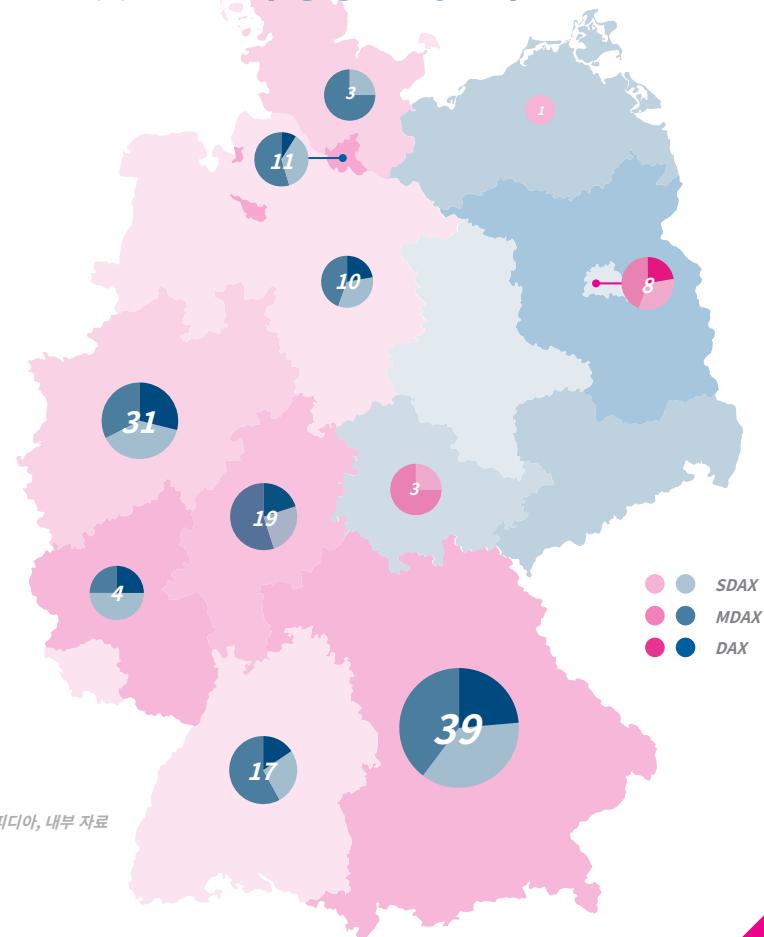
동부 지역에서는 대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Dax 30에 상장된 기업 중 도이체보넨(Deutsche Wohnen)과 지멘스(Siemens)만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베를린에는 MDax에 상장된 4개의 기업과 SDax에 상장된 기업이 2개 있습니다. 동부의 경영 상태가 서부 독일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튀링겐주에는 MDax에 상장된 기업이 1개,
SDax 상장된 기업이 2개 있습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 SDax 상장사가
1개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및 작센안할트주의 기업들은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x, MDax 또는 SDax에 상장된 160개의 기업 중 12개(7.5%)의 기업만이 동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DAX, MDAX 및 SDAX에 상장된 기업 수



경제 - 9번째 팩트체크 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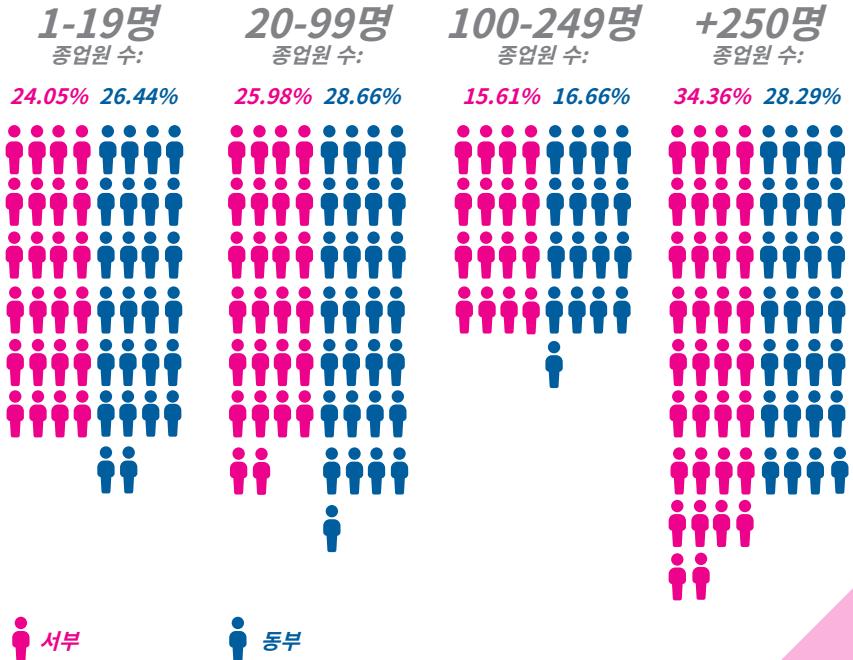
동부의 경제 구조는 서부와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즉, 종업원 수 250명 이상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이 서부가 동부보다 명확하게 높습니다(34% 대 28%).

반대로 동부의 종업원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규모”가 동부의 혁신 부문에 대한 고질적인 취약점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연구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수출 지향적이며 다른 회사를 유치하는 중심 기업의 역할을 합니다.⁴

반면 중소기업은 지역의 다양한 경제 구조를 구성하고, 각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제 정책은 동부 경제를 돋는 지원 정책 역할도 합니다.

동부 및 서부 내 종업원 비율:



참조: 노동청 통계, 내부 자료

창업

동부의 회사 설립 수는 서부의 회사 설립 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습니다. 2018년 기준, 동부 5개 주에 거주하는 인구 1,000명당 6개의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반면 서부는 인구 1,000명당 최소 8개 이상의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부에는 창업 핫플레이스인 베를린이 있습니다. 베를린에는 인구 1,000명당 12개 이상의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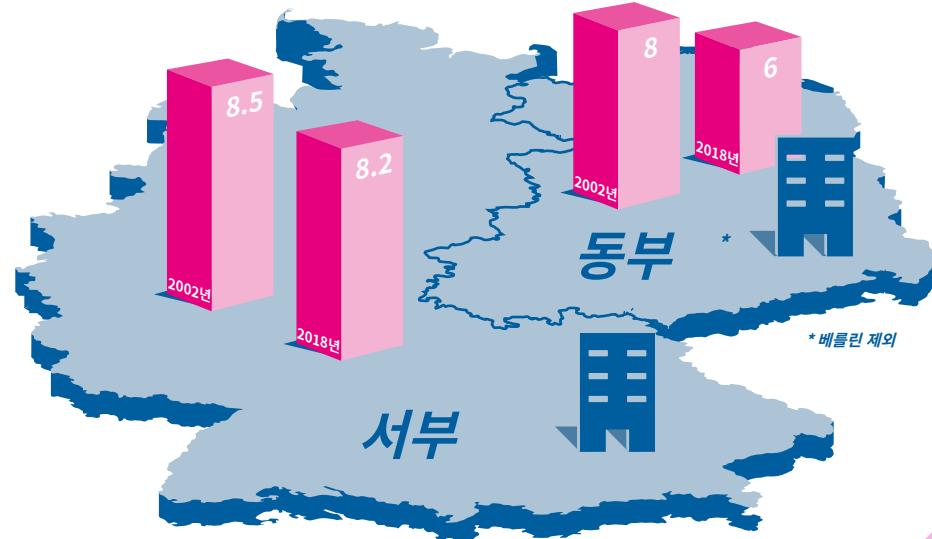
베를린의 창업 원동력을 이용해 동부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베를린 내 스타트업 기업과 인근 대학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

베를린을 통하여 동부 지역이
독일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회사 설립 비율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경제 - 11번째 팩트체크 광대역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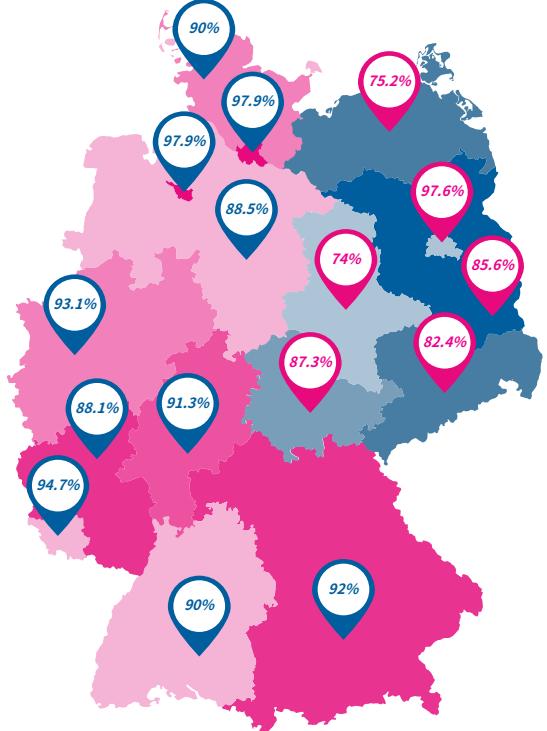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비혁신적인 기업은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16개 주 내의 광대역 보급률을 살펴보면, 동부 5개 주에서의 인터넷 구축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광케이블망을 독일 전역에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광케이블 확대 설치작업이 (이를 진행하는)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게 하려면, 여러 지역을 클러스터의 형태로 묶어서 수주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시급한 지역과 (기업에게 이미 충분히) 매력 있는 지역을 함께 묶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을 설치한 가구 비율*



*인터넷 속도가 50Mbit/s 이상인 가구

출처: BMWI - 독일의 현재 광대역 보급률

1. 브레멘주: 97.9%
2. 함부르크주: 97.9%
3. 베를린주: 97.6%
4. 자를란트주: 94.7%
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93.1%
6. 바이에른주: 92%
7. 헤센주: 91.3%
8. 슬리스비히홀슈타인주: 90%
9. 바덴뷔르템베르크주: 90%
10. 니더작센주: 88.5%
11. 라인란트팔츠주: 88.1%
12. 튀링겐주: 87.3%
13. 브란덴부르크주: 85.6%
14. 작센주: 82.4%
15.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75.2%
16. 작센안할트주: 74%

II장:
사회

동부 독일의 인구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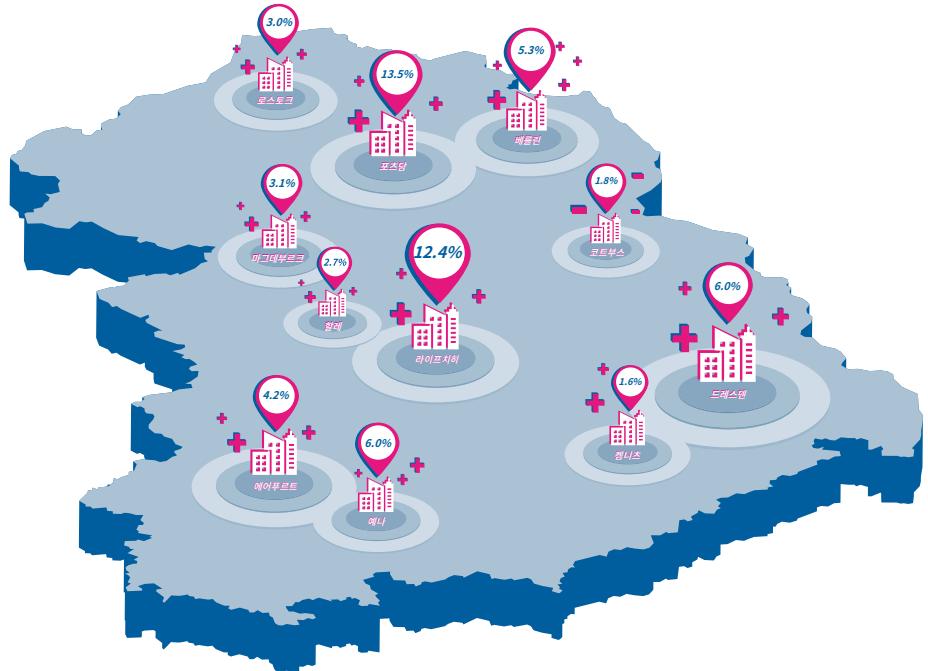
동부에는 11개의 대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각 대도시에는 100,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베를린의 인구수 급증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수 급증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동부 독일의 11곳의 도시 중 10곳의 인구수가 증가했으며, 이 증가율은 높았습니다. 포츠담과 라이프치히는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드레스덴과 예나는 2010년부터 연방

수도인 베를린보다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유일하게 코트부스만 이 시기에 인구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도시”였던 코트부스가 중소도시로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인구수는 대도시의 기준인 100,000명보다 219명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2010년~2018년 인구 성장률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내부 자료

사회 - 13번째 팩트체크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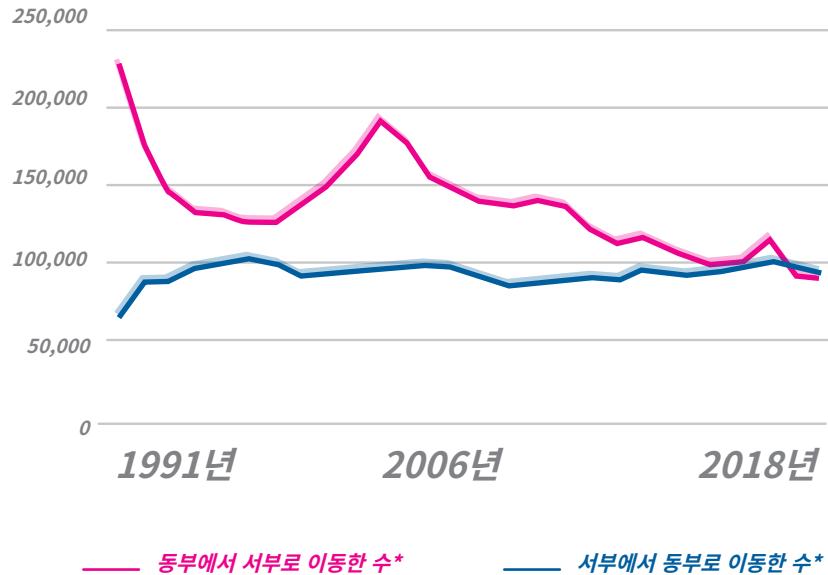
2016년까지 매년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가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는 수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구 이동 현상은 1991년과 밀레니엄 당시 동부 지역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여 짧은 총이 서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가장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해부터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동부에서 서부가 아닌 서부에서 동부로 더 많은 인구가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한 수가 더 많았습니다. 동부 지역의 인구 유출은 이제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 내 인구 이동



**베틀린 제외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동부의 대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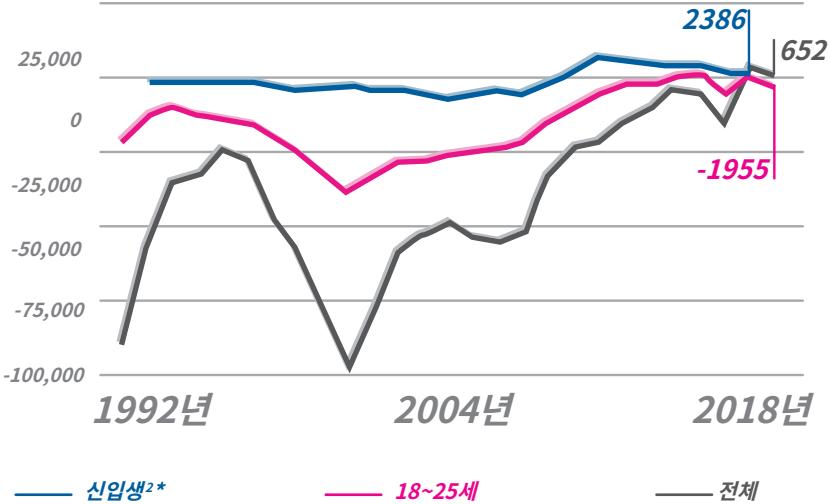
동부 학생들에게 점점
인기 있는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부의 대학이 학생들에게 점점 더 인기 있는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9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동부에서 서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2017년 학기에는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 총 2,400여 명의 신입생이 서부에서 동부로 더 많이 이동하였습니다.

연방 통계청(Destatis)이 발표한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학생들이 동부로 이동하면서 8년간 인구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동부의 인구 균형(베를린 제외)^{1*}



^{1*}베를린 제외 / ^{2*}1992/2018 신입생 정보 없음

출처: 연방 통계청(Destatis), 2020년

구분 방식: “동부”와 “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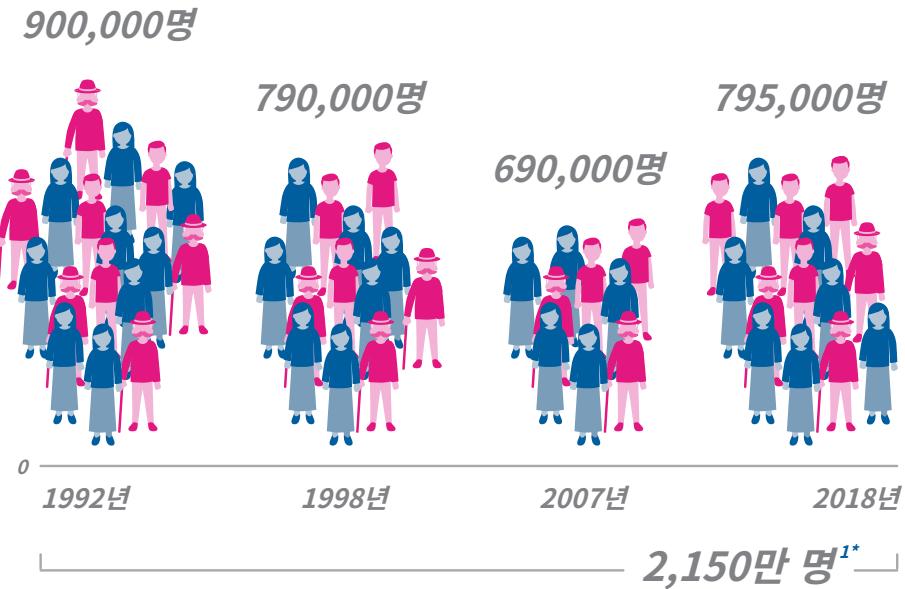
”

“동부”와 “서부”로 구분하는 것이 현시대에 의미가 있을까요?

1990년부터 2018년 사이에만 약 2,150만 명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단 시대의 독일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는 실제로 약 2,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986년 이후에 태어나서 분단된 독일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숫자를 두고 “동부”와 “서부”로 구분하는 사고 방식이 현시대에 맞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진지하게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의 출생자 수



^{1*} 1992~2018년 사이에 태어난 전체 출생자 수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사회 - 16번째 팩트체크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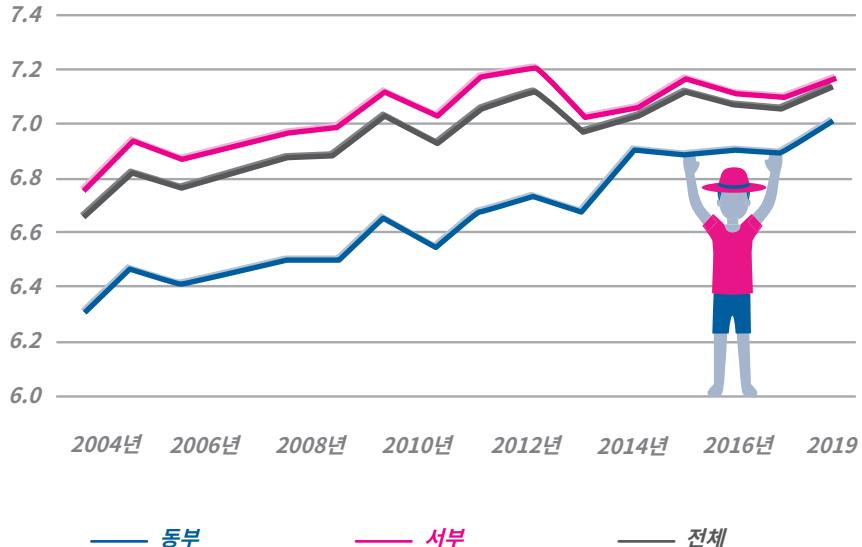
현재 독일 사람들의 생활 만족도를 0점~10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 답변이 평균 7.1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는 7.17점, 동부는 7.0점으로, 독일 통일 이후 동부의 생활 만족도는 2019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2004/2005년 이후 두 지역의 평균 생활 만족도의 추이는 비슷해지고 있으며 두 그래프 사이의 간격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직장,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에 대하여 지난 10년간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 자유 시간을 바탕으로 동부 사람들도 서부 사람들처럼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독일 지역별 생활 만족도



*0: 매우 불만족스러움, 10: 매우 만족스러움

출처: 독일 우체국 글뤽스아틀라스 2019년

기대 수명

독일 통일 직후 동부의 신생아 기대 수명은 서부 신생아 기대 수명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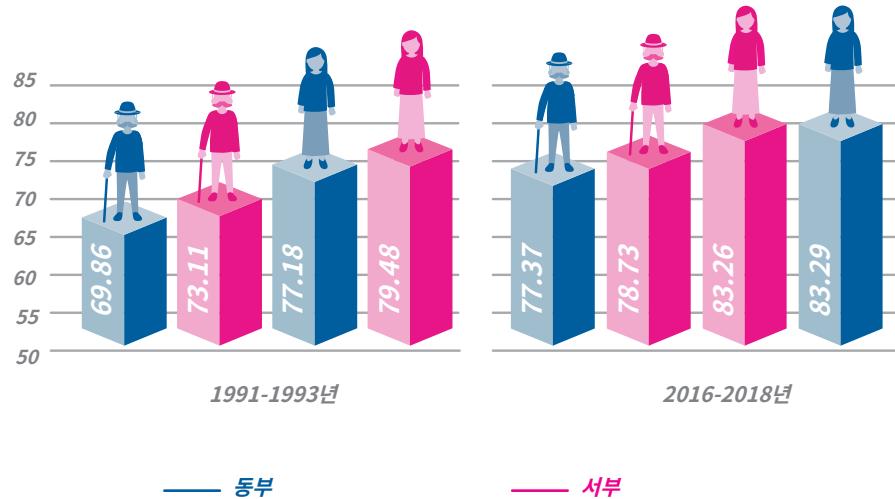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동부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69.86세였습니다. 같은 시기 서부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73.11세였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여아의 경우 조금 적었습니다.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태어난 동부 여아의

경우 기대 수명은 77.18세였으며, 서부 여아는 79.48세였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태어난 두 지역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제는 동부에서 새로 태어난 여아의 수명이 더 길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동부에서 태어난 여아의 기대 수명은 83.29세로, 서부에서 태어난 여아보다 더 긴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 및 서부 기대 수명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사회 - 18번째 팩트체크 시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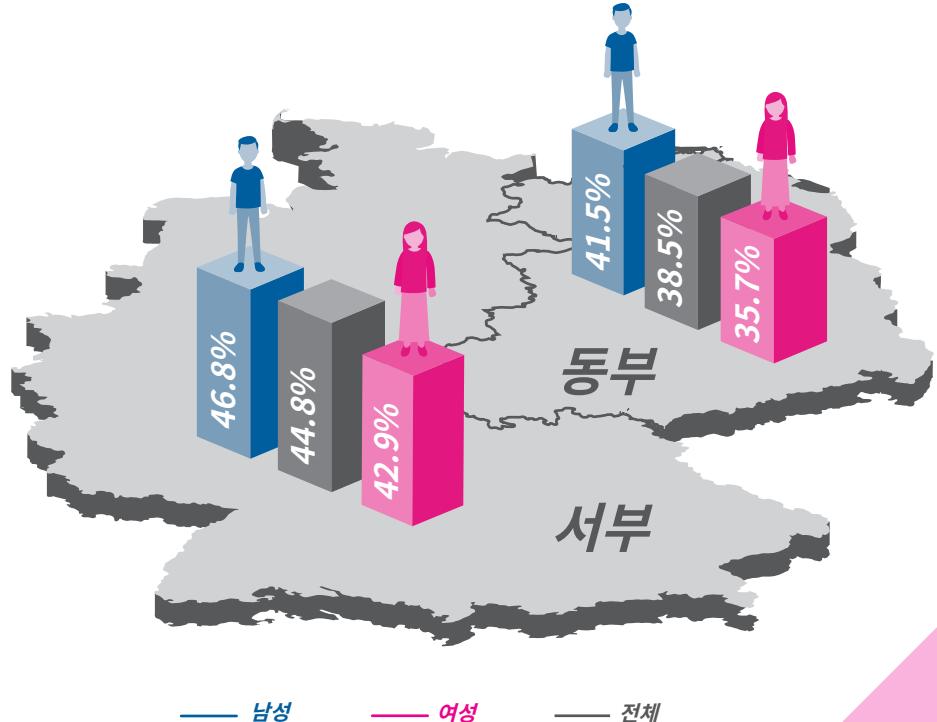
서부의 시민 참여율은 동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2014년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서부 독일인의 44.8%가 개인 여가 시간에 자발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부의 비율은 38.5%에 불과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동부와 서부의 큰 격차는 여성의 시민 참여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1999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부터 2014년까지, 자발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가하는 동부 여성의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동부 내 참여율(베를린 포함)은 약 10.6% 증가했습니다.

정책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율이 가장 우세한 곳은 라인란트팔츠주로, 48.3%입니다. 동부에서는 42.8%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가 가장 높습니다.

동부 및 서부 지역의 시민 참여율



출처: 2014 설문조사

사회 - 19번째 팩트체크 교외 지역

독일 지도를 살펴보면, 교외 지역이 서부보다 동부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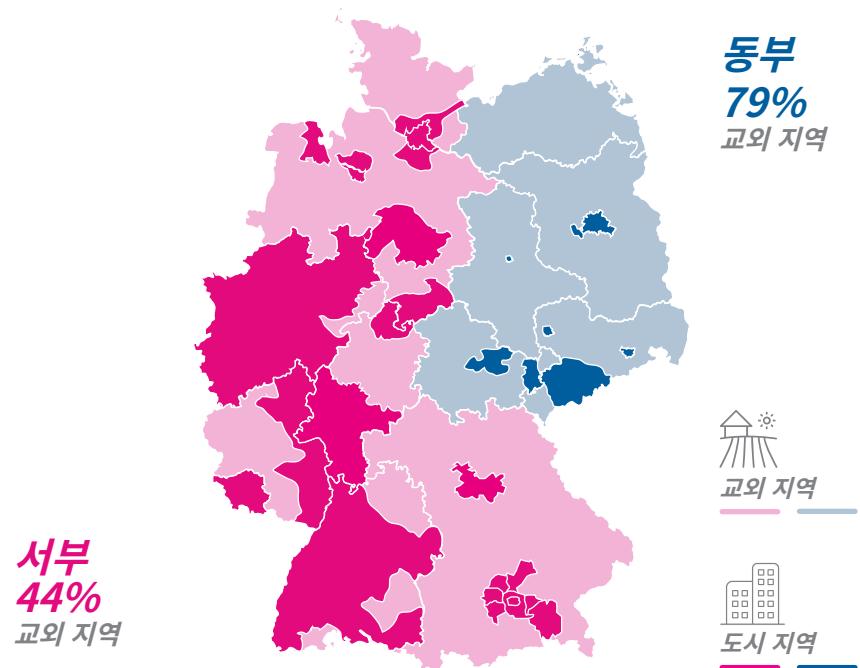
서부 지역의 324개 도시 중 142개(약 44%)가 교외 지역인 반면 동부 지역의 77개 도시 중 61개(약 79%)가 교외 지역으로 확인됩니다.⁴

이는 인구 밀도에도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신연방주(베를린 제외)에는 제곱킬로미터당

11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부 10개 주에는 제곱 킬로미터당 268명으로, 신연방주 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⁵

동부와 서부의 경제력 차이를 분석할 때, 교외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은 도시 지역의 경제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 및 교외 지역



⁴ 교외 지역과 도시 지역은 독일 연방 건설, 도시 문제 및 공간 개발 연구소(BBSR)의 정의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기에는 대도시와 중형 도시의 인구 비율, 도시 내 인구 밀도, 그리고 대도시와 중형 도시 외 도시 인구 밀도와 같은 세 가지 주요 기준이 있습니다.

⁵ 2019년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독일 연방정부 연간 보고서,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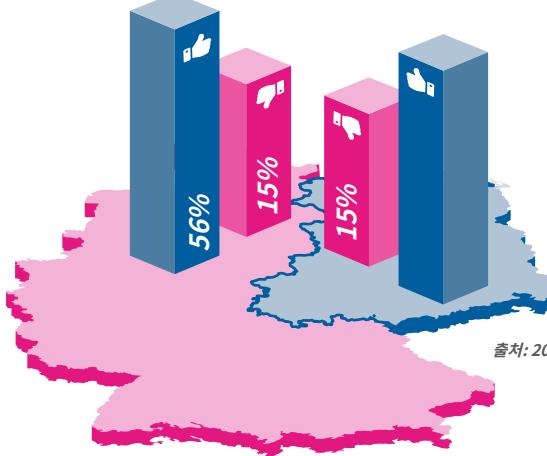
사회 - 20번째 팩트체크 독일 통일에 대한 의견

동부 사람들이 지난 30년간 해낸 일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불평쟁이 동독인(Jammer-Ossi)” 이미지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선입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과거 구동독 시민의 69%가 구동독 생활과 비교했을 때 현재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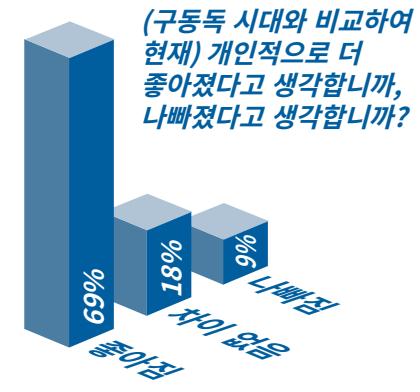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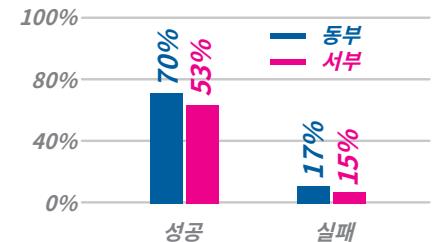
응답자 중 9%만이 구동독 시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동부 사람들의 70%는 독일 통일을 성공적이라 평가하지만 서부 사람들 중에는 성공적이라 평가하는 응답자 비율이 53%에 그쳤습니다.



독일 통일은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 유리하다
— 불리하다

통일에 대하여 성공이라고 느끼십니까,
실패라고 느끼십니까?



(구동독 시대와 비교하여
현재) 개인적으로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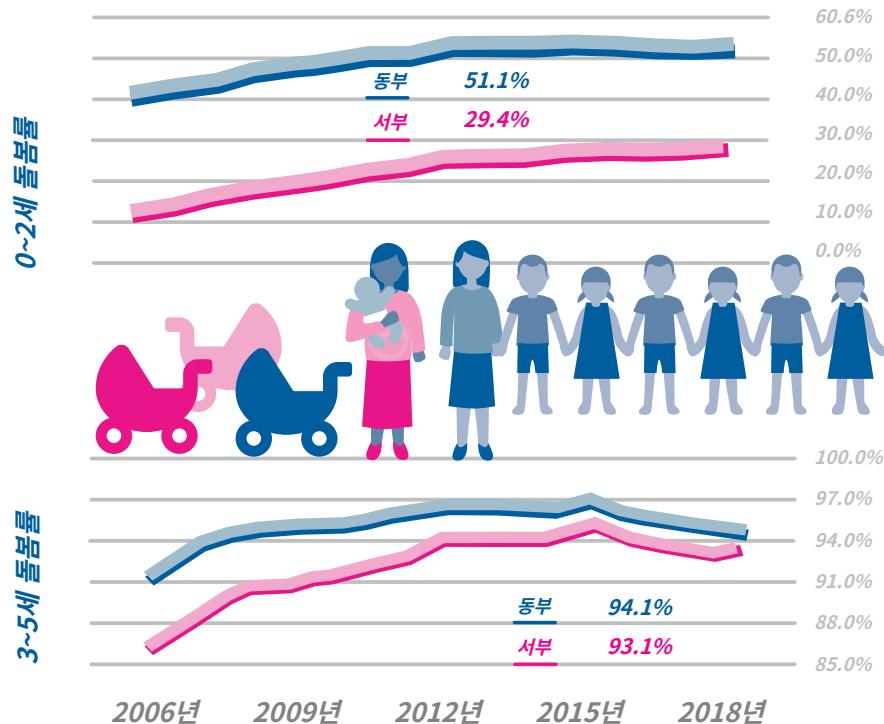
사회 - 21번째 팩트체크 보육 서비스

독일 통일 후 30년이 지난 후에도 동부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선도적입니다. 특히 3세 미만 보육 시설 이용률에 있어서 동부와 서부 사이에는 20%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세~5세 보육 시설 이용률에서도 동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서부도 뒤따라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동부와 서부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구동독 당시에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서부에서도 이러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에 점차 적응하고 있습니다.



출처: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사회 - 22번째 팩트체크 평균 연령

동부의 평균 연령은 평균적으로 서부보다 높습니다.

평균 연령 비교에서 동부의 5개 도시가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작센안할트주로, 평균 연령은 47.8세입니다. 가장 하위권에는 함부르크주와 베를린주가 있으며, 평균 나이가 각각 42.1세 및 42.6세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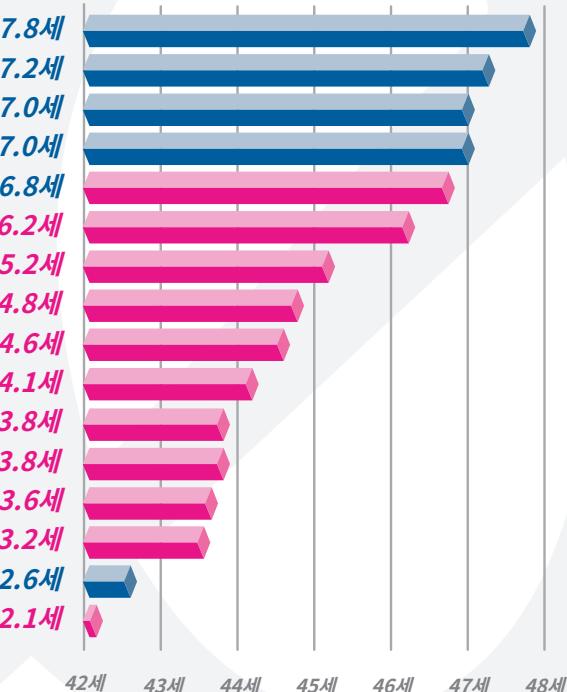
동부의 평균 연령은 1990년부터 37.9세에서 46.6세로 높아졌습니다. 서부 독일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평균 연령이 39.6세에서 44.0세로 높아졌습니다.⁶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출생률 감소와 기록적인 이민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관찰된 추이를 봤을 때, 동부와 서부의 평균 연령차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 평균 연령(2018년)

1. 작센안할트주
2. 튜링겐주
3. 브란덴부르크주
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5. 작센주
6. 자를란트주
7. 슐리스비히홀슈타인주
8. 라인란트팔츠주
9. 니더작센주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11. 바이에른주
12. 헤센주
13. 브레멘주
14. 바덴뷔르템베르크주
15. 베를린
16. 함부르크주

— 동부
— 서부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⁶ 할레 경제 연구를 위한 라이프니츠 협회 (2019): 국민 평균 연령: 동서부 격차에 대하여 (<https://www.iwh-halle.de/publikationen/detail/aktuelle-trends-durchschnittsalter-der-bevoelkerung-deutliches-ost-west-gefalle/>)

사회 - 23번째 팩트체크
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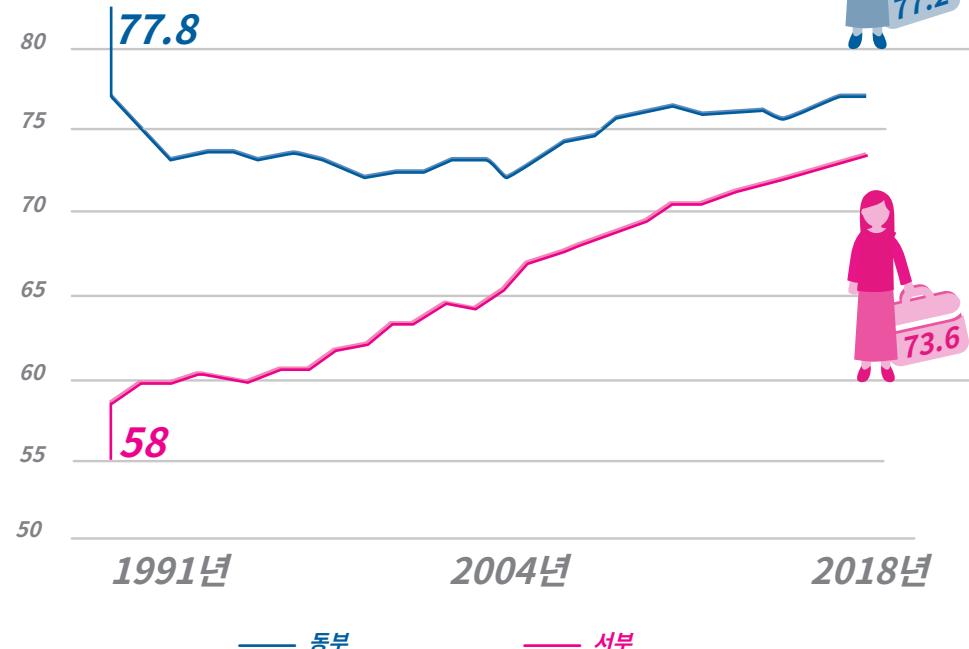
구동독 당시 여성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직업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중 고용된 여성 비율로 측정됩니다. 오늘날에도 동부의 여성 고용률은 서부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두 지역 차이가 3.6%로, 서부도 점점 따라잡고 있습니다.

서부의 보육 시설 이용률이 동부 수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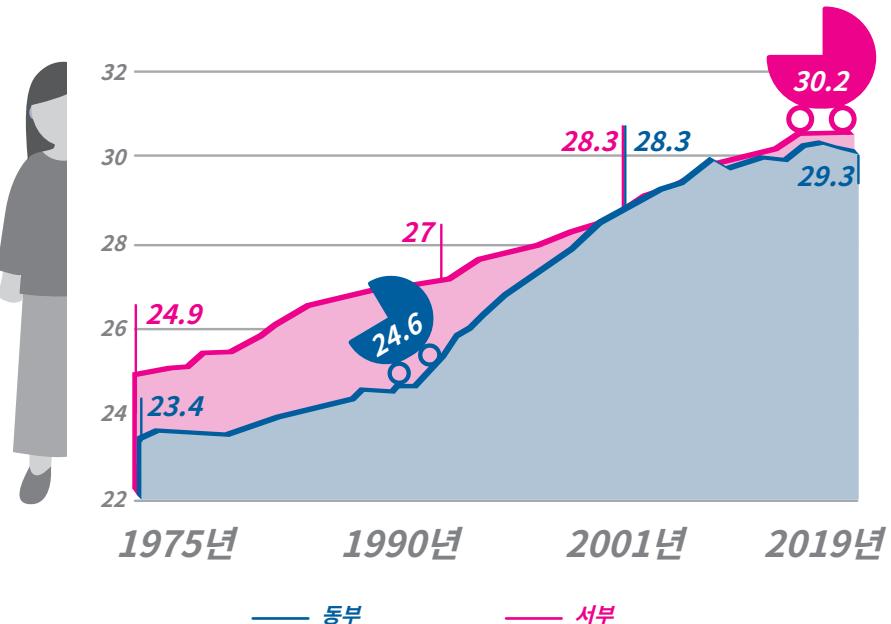
출처: 노동청 - 2018년 독일 노동 시장

여성의 첫 자녀 출산 평균 나이

여성의 첫 자녀 출산 평균 나이는 통일 후 매우 빠르게 비슷해졌습니다. 1990년, 두 지역의 차이는 2.4세였습니다. 동부 여성의 첫 자녀 출산 평균 나이는 24.6세이고, 서부 독일 여성의 평균 나이는 27.0세였습니다.

이 차이는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사라졌습니다. 2001년 기준 두 지역의 첫 자녀 출산 평균 나이는 28.3세였습니다. 이후 두 지역의 평균 나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나이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여성의 첫 자녀 출산 평균 나이



출처: 연방 통계청

III장:
재미있는 사실

흥미로운 사실 - 25번째 팩트체크
분데스리가 1부 리그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동부 출신의 클럽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29번의 리그 동안 동부 출신의 축구 클럽 중 두 팀 이상이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경기를 뛴 전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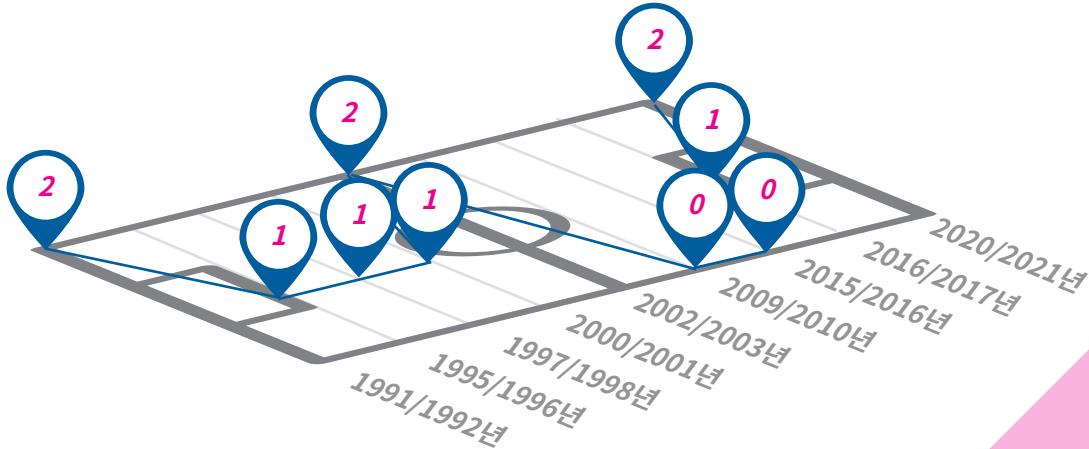
2009년부터 2016년 사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동부 축구 클럽을 아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RB 라이프치히 팀이 분데스리가 첫 시즌에서 2위를 차지하여 승격하면서 바뀌었습니다.

⁷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는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베를린에 연고지를 둔 두 번째 축구 클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의 연고지는 살로텐부르크-빌마스도르프로, 베를린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동부 축구 클럽은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뛸 수 없었습니다.

2019/2020 경기부터는 분데스리가에서 두 동부 축구 클럽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RB 라이프치히 외 동부 베를린에서 인기 있는 우니온 베를린도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⁷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
참가한 동부 출신의 축구 클럽**



출처: weltfussball.de, 내부 자료

재미있는 사실 - 26번째 팩트체크 식습관

동부와 서부 사람들의 식습관은 서로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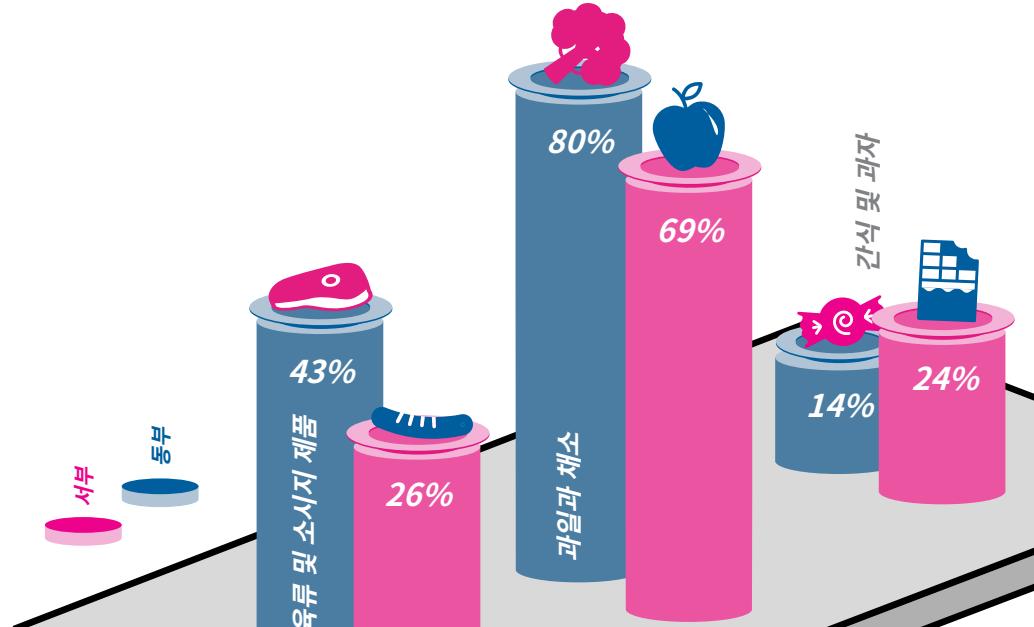
동부 지역 사람들의 43%는 매일 육류 또는 소시지 제품을 먹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의 경우 26%만이 매일 이들 제품을 먹습니다.

또한, 동부 지역에서 과일과 채소도 더 많이 소비됩니다. 동부 사람들의 80%, 서부 사람들의 69%가 매일 과일과 채소를 섭취합니다.

서부 사람들은 동부 사람들보다 간식과 과자를 더 즐겨 먹습니다. 서부 사람들의 24%는 매일 간식이나 과자를 즐겨 먹지만 동부에서는 14%만 매일 먹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음식은 반드시 맛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 사람들의 100%, 서부 사람들의 99%가 동일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부와 서부의 식습관



출처: 2019년 BMEL 영양 보고서

재미있는 사실 - 27번째 팩트체크
크리스마스 문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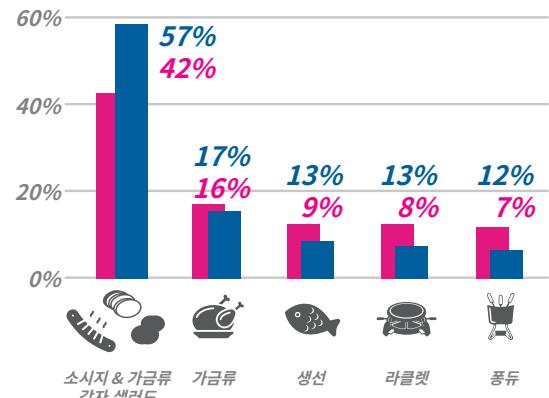
**크리스마스는
동부와 서부 모두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독일 지역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선물을 사기 위해 씁쓸이가 커집니다. 2019년에는 서부 응답자가 동부 응답자보다 조금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서부 285유로 대 동부 265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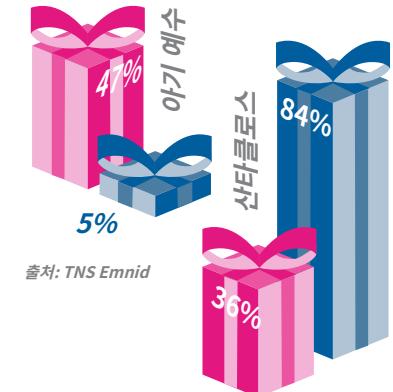
그리고 동부에서는 대부분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반면, 서부에서는 아기 예수가 선물을 줍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음식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음식은 소시지와 감자 샐러드입니다. 동부 지역의 57%와 서부 지역의 42%가 이 두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크리스마스 음식(크리스마스 전날 보통 다음과 같은 음식을 먹는 응답자의 비율)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자



출처: TNS Emnid

크리스마스 선물용 예상 비용



출처: 유효한 자료

**본 범례는 69쪽의 모든 차트에 유효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 28번째 팩트체크 결혼과 이혼

서부의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는 동부보다 많으며, 이혼 건수도 동부보다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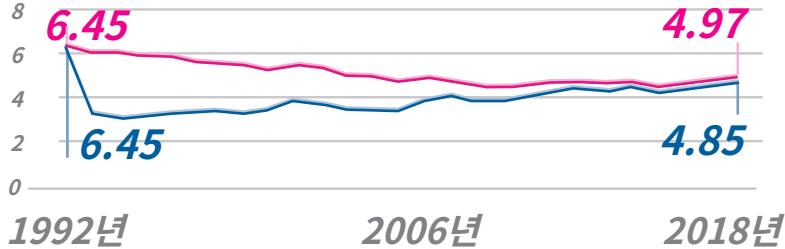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결혼 비율이 서부는 4.97, 동부는 4.85였습니다. 이혼의 경우 서부 지역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서부에서는 인구 1,000명당 약 2건의 이혼이 발생하며, 동부에서는 1,000명당 약 1.77건의 이혼이 발생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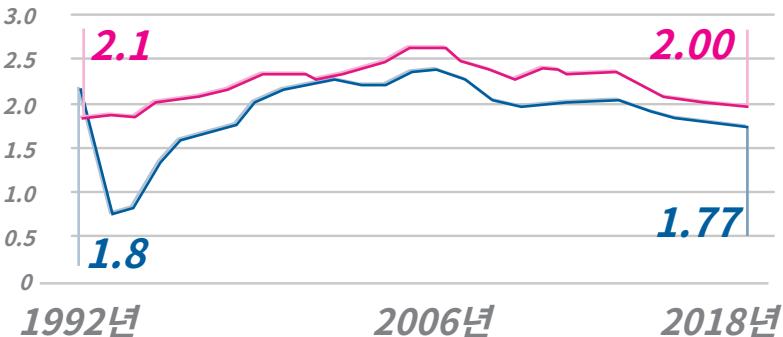
동부의
이혼 대비 결혼 비율은
서부와 비교했을 때
더 높습니다.

결혼과 이혼 건수를 비율로 계산하면 동부 지역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동부에서는 1건의 이혼 대비 3.35건의 결혼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부에서는 2.97건의 결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



동부

서부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내부 자료

이름

2019년, 동부와 서부에서 인기 있는 이름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아의 경우 Hanna/Hannah, Emma, Mia라는 이름이 동부와 서부, 두 지역에서 인기 있는 이름 5위권에 들었습니다.

남아의 경우에도 두 지역 간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Ben과 Paul이란 이름이 동부와 서부, 두 지역에서 모두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남아 이름은 2018년에도 인기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Ben이란 이름이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순위

여아		남아	
동부	서부	동부	서부
HANNA / HANNAH	SOPHIA / SOFIA	1. EMIL	NOAH
EMMA	EMMA	2. KARL / CARL	LEON
MIA	HANNA / HANNAH	3. OSKAR / OSCAR	BEN
FRIEDA / FRIDA	EMILIA	4. BEN	PAUL
KLARA / CLARA	MIA	5. PAUL	FELIX

출처: 독일 언어 학회(GfdS)⁹

⁹ 해당 이름은 첫 번째 이름에 해당되며, 성과 이름 그 외의 이름은 순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비 행태

쇼핑을 계획할 때 동부와 서부 사람들은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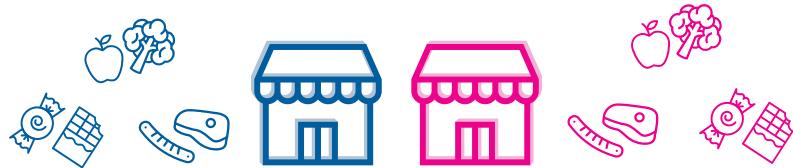
동부 사람들은 금요일에 쇼핑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반면 서부 사람들은 토요일을 좋아합니다.

동부와 서부 사람들이 세 번째로 쇼핑하기 좋아하는 요일은 월요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동부와 서부 모두 일요일에 쇼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
쇼핑을 계획할 때
동부와 서부 사람들은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동부의 1.3% 사람들과 서부의 1.5% 사람들만이 생활용품을 일요일에 구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쇼핑하기 좋아하는 요일¹⁰



동부

서부



출처: 2020년 VuMA의 소비 및 언론 매체 분석

¹⁰2019년 생활용품(생활필수품, 음료 등)을 쇼핑하기 좋아하는 요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Karl-Marx-Straße 2

14482 Potsdam

www.freiheit.org